인순이, 예능 첫 도전…"항상 궁금했다"

'두 번째 서른' 출연
"예능을 다큐로 만드는 재능 저에게 있더라고요"

TV조선 '두 번째 서른'으로 데뷔 이후 첫 예능에 출연한 가수 인순이(61·사진)는 26일 서울 중구 조선일보 씨스퀘어 빌딩에서 열린 프로그램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웃었다.

'두 번째 서른'은 60대에 접어든 가수 인순이, 노사연, 신형원, 개그우먼 이성미 등 네 명의 연예계 '절친'들이 자전거 국토대장정을 나서는 내용이다.

환갑을 뜻하는 '두 번째 서른'을 맞은 멤버들은 5박 6일 동안 자전거로 425㎞를 달리는 여정을 통해 오르막길, 내리막길, 자갈길 등이 살아온 인생과 닮아있음을 알게 된다.

인순이는 "예능이 항상 궁금했다. 어떻게 다들 그렇게 말들을 잘할까 싶었다"며 "연락이 왔길래 '나도 (예능) 해볼 수 있는 거야?' 싶었다. 지금까지 없었던 추억을 만들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친구들과 함께 하는 여행을 통해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깔깔거리며 웃기도 했고 다시 동심으로 돌아갔다. 편안한 사람들과 우리들 자체로 있었던 순간이라 행복했다"며 "'두 번째 서른'은 나에게 있어 또 하나의 세상을 볼 수 있는 문이었다"고 돌아봤다.

최근 방송에 활발히 출연하며 다시 전성기를 맞은 노사연은 "연예인으로 40년 동안 활동했고 올 한해 열심히 살았는데 '두 번째 서른'은 쉬어가는 느낌으로 참여했다"며 "나를 찾고 돌아보는 느낌이라 좋았다. 인생을 돌아보면 '두 번째 서른'이 상위에 있을 만큼 감동이었던 순간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두 번째 서른'을 넘어 세 번째, 네 번째 서른까지 가고 싶다"고 웃었다.

자전거를 30년 만에 탔다는 신형원은 "죽느냐 사느냐였다"며 "37년째 활동하고 있는데 '두 번째 서른'만 남을 정도로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신형원은 "'두 번째 서른'이라는 나이가 자신을 돌보기 힘든 나이"라며 "우리와 동시대를 살아온 또래들이 프로그램을 통해 꿈을 갖고 다시 도전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자전거를 처음 탄 이성미는 "내 생에서는 자전거는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며 "세 번째 서른에는 우리 네명이 휠체어로 또 도전했으면 좋겠다"고 웃었다.

이들 네 명의 여행에는 후배 가수 강균성과 알리가 함께했다.

강균성은 "원래 선배들과 친분이 있어서 섭외 받았을 때 기분이 좋았다. 자전거길이 우리 인생길 같았다. 선배들의 인생 이야기를 들었을 때 벅찬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알리는 "선배들과 함께 다닐 때 나이 차이가 느껴지지 않았다. 선배들의 인생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며 "여행 다녀와서 자전거를 사려고 알아보고 있다"고 웃었다.

출연자들은 시청률 동시간대 1위를 하면 "음악회를 열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기도 했다.

내년 1월 2일 밤 11시 첫 방송. /연합뉴스

따뜻한 판타지 로맨스 '계룡선녀전' 3.8% 종영

'선녀와 나무꾼'의 따뜻한 재해석은 좋았지만 16부작을 끌고 가기에는 힘이 다소 부족했다.

26일 시청률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30분 방송한 tvN 월화극 '계룡선녀전'〈사진〉 마지막회 시청률은 3.8%(유료가구)를 기록했다.

최종회에서는 선녀 선옥남(문채원 분)이 699년 기다린 진짜 남편 김금(서지훈)과 재회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 드라마는 시청률 14%를 넘긴 '백일의 낭군님' 후속작으로, 전작만큼은 아니지만 사극 로맨스 요소가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았다. 특히 인기 웹툰을 원작으로 해 초반 팬층도 확보했다.

그러나 웹툰을 3차원으로 실사화하면서 빈틈이 노출됐고, 그 빈틈을 다소 산만한 구성으로 채우면서 원작 팬들과 다른 시청자 눈을 오래 붙들지는 못했다. 어색한 컴퓨터 그래픽도 몰입도를 떨어뜨렸다.

그럼에도 자극적인 요소 없이 선옥남과 김금, 정이현(윤현민) 간 삼각 로맨스를 따뜻하게 풀어낸 점은 호평받았다. 출연진 중에서는 신인 서지훈이 안정된 연기와 훈훈한 외모로 주목받았다.

후속으로는 여진구, 이세영, 김상경 주연 '왕이 된 남자'를 방송한다.

한편, 오후 10시 방송한 지상파 월화극 판도에는 다소 변화 조짐이 있었다.

SBS TV '복수가 돌아왔다'가 6.2%~7.4%로 MBC TV '나쁜형사'(7.0%~8.7%)를 바짝 추격하며 반등을 꾀했다.

초반 다소 산만한 전개로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한 '복수가 돌아왔다'는 극이 자리를 잡고 유승호와 조보아가 본격적으로 매력을 발산하면서 시청률 상승세다.

반면, 영국 드라마 '루터'를 원작으로 해 안방극장에서 보기 어려운 강렬한 연출을 기대하게 한 '나쁜 형사'는 신하균의 열연 외에는 엉성한 구성과 전개를 노출하며 시청률 하락 곡선을 그렸다.

KBS 2TV '땐뽀걸즈'는 2.0%~2.5%로 종영했고, JTBC '일단 뜨겁게 청소하라'는 3.304%(유료가구)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KBS UHD신년기획 '내 삶의 파도 다도해' 1월 1일 방영

KBS 1TV는 UHD 신년기획 '내 삶의 파도 다도해'를 방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섬이 많은 지역을 일컫는 다도해에는 2300여개의 크고 작은 섬들이 흩어져 있다. 이 중 80% 이상인 1891개가 전라남도에 있고 이 중 사람이 사는 섬은 402개다.

이들 섬에는 논과 밭이 적고 땅이 척박해 농사도 어려운 데다 과거엔 교통도 불편했다. 그러나 다도해 사람들은 이런 환경에서도 농사를 짓고 바다 일을 하며 살아왔다.

'내 삶의 파도 다도해'는 다도해의 아름다운 풍경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섬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다음 달 1일 오후 12시 10분 방송. /연합뉴스

완도 다도해 일출공원

홍진영 ~ 셀럽파이브 … '전국노래자랑' 연말결선

30일 낮 12시 10분 방영

KBS 1TV는 '전국노래자랑 2018 연말결선'〈사진〉이 지난 9일 여의도 KBS홀에서 열렸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전국노래자랑'에서 입상한 280여 팀 중 예심을 통해 선정된 20개 팀이 본선에 올랐다. 수준급 색소폰 연주를 하는 12세 소년부터 싸이와 마이클 잭슨 춤을 선보이는 66세 주부 등이 눈길을 끌었다.

오프닝은 셀럽파이브가 꾸몄으며 박상철, 금잔디, 오마이걸, 김수찬, 박혜신 등 전국노래자랑 출신 가수들이 축하무대에 섰다. 현숙과 홍진영은 초대가수로 함께했다.

송해와 가수 홍진영이 진행한 '전국노래자랑 2018 연말결선'은 오는 30일 낮 12시 10분부터 120분간 방송한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27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 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비밀과 거짓말(재)	4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문지방	35 닥터 365 40 강남스캔들
9	30 KBS 뉴스	00 차달래 부인의 사랑 40 그녀들의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붉은 달 푸른 해(재)	10 SBS 뉴스 3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동행(재) 55 UHD 숨터(재)	00 죽어도 좋아 (재)		00 애니갤러리 30 고향이 보인다
12	00 KBS 뉴스 12	10 끝까지 사랑(재)	00 12 MBC 뉴스 25 장애인식개선 프로젝트 우리동네 피터팬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kbc자연재해예방특집 자연재해, 이렇게 대비합시다
1	00 사랑의 가족 50 공룡 메카드		25 헬로키즈 동물교실 (재) 55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20 드래곤에그 50 세계는 지금 스페셜	00 KBS 뉴스타임 10 생생정보 스페셜		00 뉴스브리핑
3	00 TV쇼 진품명품(재)	05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50 누가 누가 잘하나 연말결산	25 BBB삼총사의 모험 55 내 사랑 치유기 (재)	
4	00 사사건건		55 5 MBC 뉴스	00 겨울방학 특선 꾸러기 탐구생활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또봇 V 15 타오르지마 버스터 2 30 스페이스 벅스	15 이상한 나라의 며느리 스페셜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15 생방송 빛날	00 KBC특집다큐 진도 김 k푸드, 한류를 열다
7	00 KBS 뉴스7 35 한국인의 밥상	50 끝까지 사랑	15 비밀과 거짓말 55 MBC 뉴스데스크	00 닥터 365 05 고향견문록 남도에 살어리랏다 30 생방송 TV블로그 꼼지락
8	25 비켜라 운명아	30 글로벌24 55 죽어도 좋아	55 이상한 나라의 며느리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9	00 KBS 뉴스9			
10	00 특집다큐 세상은 얼마나 뜨겁고 짜릿하고 무겁고 많은가 55 UHD 숨터	00 죽어도 좋아	00 붉은 달 푸른 해	00 황후의 품격
11	00 오늘밤 김제동 40 네트워크 문화특선 올댓뮤직	10 송년특집 해피투게더 1~2부	10 대장금이 보고있다 1~2부	10 가로채널 1~2부
12	30 KBS 뉴스 40 인간극장 스페셜	40 스포츠 하이라이트	25 문화사색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05:30 통일 미리보기 〈윗동네 TV〉
06:00 한국기행(재)
06:20 세계테마기행
07:00 용감한 소방차 레이
07:30 꼬마버스 타요
08:00 딩동댕 유치원1~2
08:30 미니특공대 X
08:45 랄랄라 뿌우
09:00 두다다쿵
09:30 원더볼즈
09:4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두부 버섯스테이크와 그린스무디〉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뉴스
12:1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3:00 지식채널e(재)
13:10 장수의 비밀
13:40 전통의학, 과학의 옷을 입다
14:30 엄버와 함께하는 생활안전 이야기
14:45 로보카 폴리
15:00 마샤와 곰 스페셜
15:15 출동! 파자마 삼총사
15:45 레전드히어로 삼국전
16:15 용감한 소방차 레이
16:30 랄랄라 뿌우(재)
16:45 딩동댕 유치원1~2(재)
17:15 두다다쿵
17:30 뽀롱뽀롱 뽀로로
18:00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1~5
19:00 레이디버그
19:30 EBS 뉴스
19:50 질문 있는 특강쇼 - 빅뱅
20:40 세계테마기행 〈신들의 섬, 바누아투 4부 천국보다 아름다운 에파테〉
21:30 한국기행 〈국수기행2 4부 밀양에서 만나'면'〉
21:50 다큐 시선
22:45 다문화 고부 열전
23:55 EBS 스페이스 공감
25:05 지식채널e
25:10 과학 다큐-비욘드(Beyond)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2월 27일 (음 11월 21일 癸巳)

子 36년생 좋은 일이 있을 때 마도 많이 끼는 법이다. 48년생 반가운 소식이 있겠다. 60년생 미룬다면 흉조를 낳을 가능성이 있다. 72년생 짐을 진채 거친 숨을 쉬면서 오르막길을 오름에 비유한만하다. 84년생 투명하게 밝힌다면 쉽게 융합 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64, 22

丑 37년생 승산이 있는 게임이다. 49년생 뒤쳐진다면 부작용이 생길 것이다. 61년생 신용을 잃은 이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법이다. 73년생 한 눈 팔지 말고 현재 마주대하고 있는 바에 주목하라. 85년생 유지하는 것이 대수가 아니므로 진보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80, 99

寅 38년생 미진한 가운데에서 고생이 많겠다. 50년생 접하는 모든 것의 인연이 짧겠다. 62년생 집착을 떨쳐버려야 객관적 판단이 가능해진다. 74년생 미로에서 헤매다가 간신히 길을 찾게 되는 이치이다. 86년생 흉한 것은 많고 길한 것은 적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18, 79

卯 39년생 참과 거짓을 헤아리기 힘들 것이니라. 51년생 알차고 보람 있겠다. 63년생 예외로 치부해 왔던 바가 중심에 서게 된다. 75년생 결코 한시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 분명히 있느니라. 87년생 인식의 끈을 놓치지 않아야만 무난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6, 84

辰 40년생 두루 살피는 것이 현명하다. 52년생 다자 관계의 입장을 고려해야 하는 고뇌가 보인다. 64년생 진행하는 과정에서 점차 실마리를 찾게 된다. 76년생 서로 인연이 박하니 억지로는 아니 되느니라. 88년생 겉보기와는 달리 내면의 실속은 없다. 행운의 숫자 : 30, 05

巳 41년생 생소한 것에는 조심해야 하느니라. 53년생 있어도 없는 것 같고 없어도 있는듯 하리라. 65년생 순간적인 성급함이 결정적으로 손재수를 야기하리라. 77년생 설득력 있는 실행이 뒤따라 줘야 한다. 89년생 뻔히 다 알면서도 속아서는 아니 된다. 행운의 숫자 : 32, 72

午 42년생 국면을 전환시켜보려는 시도가 보인다. 54년생 거저 얻다시피 할 것이다. 66년생 언행을 무겁게 하고 신중을 기해야만 한다. 78년생 무리하게 행하려 한다면 하지 않음만 못 하다. 90년생 하나의 현상이 대부분의 형국에 영향을 미치리라. 행운의 숫자 : 36, 51

未 43년생 조바심을 버리고 가만히만 앉아 있으면 된다. 55년생 역할을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 67년생 의심스러운 점은 꼭 문의해 봐야 한다. 79년생 제대로 파악해야 실수가 없으리라. 91년생 내버려두면 점차로 쇠하여 기력을 다 한다. 행운의 숫자 : 56, 70

申 44년생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법이다. 56년생 개별적 인식이 명확해야 한다. 68년생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낫다. 80년생 직접 처리했을 때 무리가 따르지 않으리라. 92년생 아무리 해봤자 헛수고에 불과하게 될 것이니 무의미한 판국이다. 행운의 숫자 : 35, 71

酉 45년생 넉넉하게 마련해두는 것이 알차다. 57년생 의심스런 인연이니 경계심을 버리지 말라. 69년생 다방면을 수렴한 종합적인 설계가 필요하다. 81년생 나타날 때까지 예의 주시하라. 93년생 일보 전진을 위한 것이라면 이보 후퇴도 무방하도다. 행운의 숫자 : 93, 12

戌 34년생 여러 가지가 동시에 속출하는 흐름이다. 46년생 준비 되지 않았다면 보류하는 것도 괜찮다. 58년생 불만이 생길 수도 있으나 해소될 수다. 70년생 합리적인 조절이 좋은 선택으로 이어진다. 82년생 넘치려는 것은 반드시 통제하여야만 한다. 행운의 숫자 : 55, 98

亥 35년생 해답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느니라. 47년생 얼음 녹듯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 59년생 낙관적인 정황만은 아니다. 71년생 문제점이 있다면 경험이 많은 이를 찾아가는 것이 유익하다. 83년생 현명한 취사선택이 절실한 때이다. 행운의 숫자 : 69, 81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